

마브 윌슨 박사, 선지자, 28과, 이사야, 일부 구절 3

© 2024 마브 윌슨과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Marv Wilson입니다. 이것은 세션 28, 이사야가 선정한 구절, 3부입니다.

좋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이번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학생이고, 지혜를 구하고 있으며, 당신의 뜻에 대한 지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신학적 소화불량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습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 활성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모든 수업에서 듣게 될 내용의 실제적인 의미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말이 바위라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이미지는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질 때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꽃은 시들고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우리의 생명이 성경에 달려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우리 삶의 닻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당신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진리가 오늘 우리를 지탱해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좋아요, 당신은 이사야 1-27장을 공부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루 20분, 매일이 지금부터 13일 동안 밤새도록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동일한 시간을 축적할 수 있지만 일부는 손실됩니다. 영어 성경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것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짧은 간격으로 여러 번 공부하면 모든 것을 오랜 시간 동안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복은 배움의 어머니이다. 돌아와서 여러 번 타격을 가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몇 가지 선택된 구절을 통해 작업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1장에서 우리는 이 반역적인 나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는 반역적인 민족입니다.

이사야의 주된 관심은 분명히 유다에 있습니다. 그는 리브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고 제가 말한 기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가 6장에서 제시하신 분쟁, 소송, 사건입니다. 언덕들은 검찰관, 곧 야훼께서 그의 대언자 미가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증거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내용은 다시 미가서 6장과 평행을 이룹니다. 미가서 6장은 이사야의 말씀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는 점점 더 힘차게 나아가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 자신의 사람들은 외적인 종교성이 강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식, 의례, 율법에 더하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께 있어서 내면에서 시작하여 밖으로 나가는 영성의 참된 의미, 즉 내적 태도를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하는 방식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께서 제시하신 이 왕국은 로마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모간 다윗을 심고, 우리가 세상의 다른 모든 나라를 몰아내고 우리의 통치와 통치를 확립할 터무니없는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말쿠트 하셰마임(Malkuth Hashemaim)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통치에 복종하는 것, 그것은 사물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실제로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과 같습니다. 비록 이사야의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에 비유되는 통렬한 고발이 여기에 있지만(10절), 이사야는 이 예식, 희생, 의례적 주제로 다시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제물은 황소와 염소의 피요?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과 모순되고 제사장들에게도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13절에서 그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NIV에서 허영(vanity) 또는 헛됨(vanity)이라는 단어가 의미 없는 것으로 번역된 것을 매우 자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단어에는 공허함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당신은 외부적으로는 움직임을 겪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현실이 빠져 있습니다. 네 향은 가증하니라

그는 우리가 어느 선지자에서 보았던 초승달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모스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초승달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초승달이 뜬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안식일처럼 여기십시오. 아무런 작업도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매주 안식일을 지냈고, 게다가 초승달이 뜰 때 대략 28일마다 한 번씩 또 다른 휴일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 밤 하늘 아래를 보면 보름달이 보일 것입니다. 왜? 오늘 밤은 유대 달력으로 무엇입니까?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입니다.

보름달 아래.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이스라엘의 순례 축제인 유월절과 가을에는 초막절, 장막 또는 초막을 요구했는데, 이는 역시 보름달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순례자로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먼 거리에서 왔고, 달이 점점 더 밝아짐에 따라 이들 중 일부는 여행의 일부를 어둠 속에서 해야 했을 것입니다. 보름달 아래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는 필요한 모든 축제를 포착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초승달. 그는 '나는 이런 것들이 싫어요'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나에게 부담이 된다. 당신은 솔로몬처럼 성전 봉헌식(열왕기상 8장)에서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전능자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손을 드는 것을 포함하여 기도의 자세에 관해 언급하는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성전 봉헌식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사야는 여기서 다시 그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가 손을 펴는 것에 대해 말할 때 말 그대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손바닥을 위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외적인 경건에만 감동받지 않으시고, 다시금 내적인 도덕적 성실성을 원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는 반대쪽을 손에 놓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 손에 피가 묻어 있느니라. 그리고 물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방식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왔던 불의한 방식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9가지 명령으로의 전환으로 사용합니다. 보세요,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1부터 11까지는 매우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구원, 칭의, 영화, 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기독교 교리의 목록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40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서 12장에서 그는 매우 신학적인 것부터 윤리적인 것,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사야도 여기서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리고 이 처음 네 가지 명령은 이스라엘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의 훈계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부정적이며 악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먼저 몸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아니면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아마도 의식적인 씻음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신약 성서에서 가장 유대인의 서신이 말하는 씻음일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의 이복 동생인 야고보가 쓴 것입니다.

그리고 4:8,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제임스가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할 때 그는 그것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Hendiadys입니다. 2인 1조입니다. 문자 그대로 hen, 하나를 의미하는 중성 그리스어 대명사.

디아는 통해라는 뜻입니다. 듀스는 2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 원어에서 두 단어를 취하는 영어 단어인 Hendiadys입니다.

우리는 요나서에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봅니다. 씻어서 깨끗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는 요한일서 1장 7절이나 요한일서 1장 9절을 좀 더 정확하게 정결케 하는 첫 번째 단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여기서 내면의 영적 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씻어서 깨끗하게 한 다음 세 번째 명령은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너희 행위의 악을 제거하라. 사람들이 진정한 테슈바, 진정한 돌이킴, 회개에 참여하면 악에서 그치게 됩니다. 회개를 뜻하는 히브리어 테슈바(teshuva)는 두 가지 행동을 포함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180도 방향을 바꾸세요. 방향을 바꾸세요.

돌아서 다. 그것이 테슈브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를 버리고 악에서 돌이킨 후에, 그만둬도 후회할 만큼 마음에 하는 영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백성들에게 악을 그치라고 훈계하는 것을 보니다. 이것이 회개의 참된 본질입니다. 제거하고, 악행을 그치고, 악행이나 행동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섯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모두 긍정적이다. 부정적인 점을 먼저 다룹니다.

선지자가 찾고 있는 것은 참된 경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의로운 생활을 다룬다. 첫 번째는 17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그는 선한 일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특히 기독교계의 신학자, 심리학자, 사회복지사들은 선을 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선천적인지, 선을 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선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르쳐야 하는가? 글썄요, 결국에는 둘 다인 것 같아요.

바울의 어깨 위에 섰던 어거스틴이나 그 원죄를 따랐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는 로마서 8장을 믿는다면, 바울은 옛 죄성을 중화시키기 위해 성령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사람인 사르카코스 사람은 성령의 영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법을 배우는 궁극적인 교사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윤리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 이유입니다.

윤리는 기본적으로 동료 인간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경건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방법과 관계를 수행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부분적으로, 우리 대학 교육은 예수님께서 선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하는 복음서에 참여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성경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능력을 갖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많이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필수 조건은 판단이나 정의와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가서 6장 8절의 윤리적 삼위일체, 즉 정의의 실천과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게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친절하거나 은혜로운 거래로 번역되고, 그런 다음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걷는 것입니다. 그의 세 번째 명령은 올바른 억압, 특히 그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박탈된 사람들, 사회에서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 무력한 사람들에게 대한 억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모세의 어깨 위에 섰는지 봅니다.

모세는 주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억압받기 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압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밤 유월절에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초로 삼고 있는 이 주제는 출애굽은 이사야 시대보다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래서 이것이 지배적인 주제가 됩니다: 자유. 그리고 물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방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주요 강조점이 됩니다.

랍비들이 노아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일곱 계명, 즉 비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계명에 관해 이야기했을 때, 노아의 일곱 율법 중 하나는 재판정을 세우는 것이었고 이 특별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고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7절에서 이것은 우리를 고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리스어 신약성경의 단어 중 하나에서 우리는 영어 단어 orphan, orphan, orphan을 얻습니다. 그것에서. 그리고 아버지 없는 사람들은 매우 취약한 집단을 대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68편 5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로 부르는 매혹적인 별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 줄로 돌아와서 과부의 수호자. 그러면 이 마지막 두 명령,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명령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나요? 고아를 변호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보호자시니라. 이스라엘이 찬송가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는 시편 68편 5절의 의미는 일상적인 차원에서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자들이 물론 전능자에게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전능자의 신원, 성품, 속성과 그러한 관심을 보일 그분의 백성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분이 거룩하시니 그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의로워야 합니다. 그분이 자비롭고 동정심이 많으신 것처럼 그분의 백성도 자비롭고 동정심이 있어야 합니다.

과부를 위한 이 간구는 기독교 교회가 설립된 후 첫 번째 시험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초대 교회의 유대인 두 그룹인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줄 일곱 사람이 식탁에 뽑힌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스테반은 오순절에 태어난 수천 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신생 유대인 공동체의 실제적인 필요를 처리하기 위해 일곱 사람 가운데서 선택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실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과부들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기독교가 등장하면서 "이제 우리가 과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1,500년, 1,400년 동안 이어온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망인은 자신의 법적 권리를 획득해야 했지만 부유한 소송 당사자들에 의해 종종 거부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이 남편을 잃으면 가부장적인 세상이라 수입원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산은 때때로 누군가에게 저당 잡힐 수 있으며, 미망인은 특정 가족, 특히 상당한 빚을 지고 있는 남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아이들도 빚을 갚기 위해 노예로 팔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과부의 사건에 대한 변호는 신약성경에 바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해해야 할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초기 유대 기독교의 책임,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이 개념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는 함께 모여 관심의 전통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미 실천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교회는 이스라엘의 대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확장이다.

그래서 바울이 특히 목회서신을 쓸 때 과부에 대한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전통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18절에서 자주 인용되는 구절에 이르렀습니다. 이 구절은 이 기소와 보상, 교정에 대한 요청에 비추어 이러한 초대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고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 특별한 초대장은 매우 부유한 인물들로 가득 찬 초대장입니다.

눈에 띄는 그림이 수백 년 후인 신약성서에서 매우 놀라운 용어로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예상한다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18절을 풀어나가는 방식은 고대 세계에서 죽어가는 산업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요나서에서 조금 이야기했던 툴루웜이 여기서 작용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땅을 덮는 헤르몬 산의 비탈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르몬 산은 애팔래치아 트레일에서 가장 높은 산인 워싱턴 산보다 약 3,000피트 더 높습니다. 저는 7월 첫째 주에 워싱턴 산에 있는 터커먼 계곡에 가서 눈싸움을 했습니다.

높이가 7,000피트 미만인데도 눈이 쌓여 있습니다. 헤르몬 산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땅을 덮고 있으며 시편에는 헤르몬 산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헤르몬산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던 산이었을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아마도 이스라엘이나 므깃도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다볼 산일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그 산이 매우 높은 산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높다는 그 작은 단어는 눈이 쌓인 이 산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헤르몬 산이라고 불립니다. 매년 매월. 거기에 눈이 50미터 이상 쌓였을 때 기상학자들이 계산을 멈춘 것은 10여 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단에. 깊이 50미터. 그래서 그 멋진 유출수는 결국 어퍼 요르단(Upper Jordan)이 됩니다.

어퍼 요르단(Upper Jordan)은 바니아스(Banias)의 샘에서도 공급됩니다. Dan Nature Preserve의 샘 옆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북쪽 부분은 셀레우코스 왕조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연 숭배를 위해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북쪽에는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년 내내 결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그 지역의 아름다움은 물이 내려와 결국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것은 자연 숭배, 특히 판(Pan) 신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앞서 말했듯이 198년 대전투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2세기 후인 예수 시대에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에서 바니아스(Banias)로 알려진 그 장소는 그 단어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곳은 신 판(God Pan)과 함께 자연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헤르몬의 물과 상부 갈릴리 전체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기 선지자가 비교를 원할 때 항상 헤르몬 산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공기 중의 모든 구름과 물질이 맑아졌던 어느 날. 우리는 이곳 다보르산 정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르몬 산을 바라보니 마치 손을 뻗어 만질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맑고 깨끗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의 아름다움은 비록 우리가 여기서 40마일 이상 떨어져서 여기를 올려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그런 비교를 할 수 있었는지 이제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화가 필요한 동포의 마음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물론 페니키아라는 단어는 여기 시돈과 두로의 도시에 대해 언급된 것처럼 보라색을 의미하는 그리스 피닉스에서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해안을 따라 있는 가나안 땅의 이름을 생각해내야 했을 때, 보라색이라는 뜻의 보라색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이곳에는 고고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 특히 포획된 Murex 껍질의 사용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발견한 해안에 있는 Dor의 이름인 Dor와 같은 장소 때문일 것입니다. 티레에서 남쪽으로 페니키아 해안을 따라 대량으로 잡힌 조개류였습니다. 따라서 고대 문헌에는 티리안 퍼플(Tyrian purple)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진 작은 Murex 껍질로 유명합니다. 하나는 진한 파란색이었고 다른 하나는 화려한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진한

파란색과 화려한 빨간색을 함께 사용하면 죽어가는 산업이 색상이 다소 눈에 띄는 의류를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보라색이 왕족의 색이거나 보라색 계통에 속한다는 생각은 고대 세계에서 발견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의복 중 일부는 진홍색을 내기 위해 천을 최대 10번까지 넣어야 하는 죽어가는 통에 많이 있습니다. 진홍색이라는 단어는 톨라(tola)라는 단어로 죽어가는 산업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것은 다시 벌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에서 두 가지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톨라(tola)는 우선 벌레 자체에 대한 언급입니다. 나무에 사는 기생 벌레의 일종입니다.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벌레는 기생 동물이었습니다. 일종의 벌레. 둘째, 이 작은 벌레를 물에 넣어 으깨면 변색되지 않는 염료가 생성되는데, 성경에서는 보통 영어로 진홍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변색되는 물질이므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지워지지 않는 품질로 인해 염색 업계에서 가장 많이 찾는 유기 물질이었습니다. 그것은 씻겨 나갈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여기에서 그의 비유를 통해 하고 있는 일은 죄 사이에 대조를 그리는 것인데, 나는 여기서 이러한 죄와 피에 물든 우리 손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초대는 용서를 향한 것입니다. 용서는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그분의 용서를 통해 근본적으로 대조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눈 덮인 헤르몬 산봉우리와 같이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요단강에 털을 깎기 전에 씻긴 양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양털과 같을 것이다.

내 생각에 이 수치는 아마도 단어 그림에 의한 기대만큼 강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이 비유를 통해 그들의 신학의 많은 부분을 가르쳤던 방식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신학의 대부분은 일상생활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죄는 과녁을 빗나가는 궁수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사용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말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 구절을 보았고, 미가와 이사야는 서로가 독립적으로 그것을 고안했다고 말하기에는 언어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빌렸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가 다른 것에서 빌렸거나 둘 다 현재 손실된 다른 독립 소스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성취에 관한 가르침을 여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가서 4장 1-3절과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신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죽음,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은 마지막 날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음, 신약성서의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분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시작하는 두 구절인 히브리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옛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그것이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마지막 날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표현에서, 마지막 날들 또는 옴 하후(Yom Ha'Hu)의 말과 그 날, 우리는 이 예언적인 공식을 보아왔습니다. 종종 메시아 시대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엘의 Yom Yahweh 개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말하자면 이 공식의 전형적인 메시아 시대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와 그의 산 곧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산이 여기에 묘사되리라. 성전산은 산 중 가장 높은 산이다.

이것을 그 맥락에서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 생활에 대해 각 문화가 신과 인간이 높은 곳, 산, 높은 곳에서 소통했다는 믿음을 어떻게 가졌는지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그런 사고방식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모세야, 나는 당신에게 613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1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태블릿 두 개에 담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이 당신이 그것들을 받게 될 곳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전통을 바탕으로 산상 수훈을 가르치십니다. 사폰산은 바알과 엘과 아낏과 가나안의 모든 판테온이 거주하는 곳이다.

북쪽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제우스는 그리스 세계의 올림포스 산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세계의 지구라트.

그래서 고대인들은 그들의 신이 높은 산에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본문은 이것이 산 중에서 가장 높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상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의 정상은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른 모든 계시나 신들 사이의 만남을 능가할 것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어떤 산보다 높을 것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종교는 종교였고, 그녀의 신은 신이었다고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은 말하자면 다른 어떤 언덕보다 높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성취를 위한 지리적 중심지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가리킨다. 우리는 여기 나오는 말이 우리를 메시아 시대로 데려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이 산으로 흘러가고 많은 민족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오순절 이후 후기에 열국의 개종, 즉 이방인의 개종을 예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흐르다, 이 산에 흘러간다는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고대 세계에서 강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유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 야곱의 하나님의 전. 이것은 그분의 이름이 거할 곳인 토라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분의 임재는 상징적으로 그룹들 위에 좌정되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는 신중심성이 있습니다.

자, 올라가자, 3절. 히브리어 성경이 끝나는 동사와 동일합니다. 이 짧은 표현은 올라가라는 뜻의 명사 알리야로 이어집니다. 이는 이스라엘로 이민할 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시온으로 성지순례를 하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야곱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영적인 교훈을 위해.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성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음, 신조와 행동 강령, 교리 체계입니다. 그리고 진술과 교리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이 믿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약성서는 이것을 믿음의 여정으로 묘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삶의 길로 인도하고 막다른 골목과 도랑에서 우리를 지켜줄 그분의 계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침, 지도, 지시인 아도나이 토라(Torah Adonai)는 그분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 그분의 백성에게 주어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는 산책입니다.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이 땅의 나라들이 그 형상 아래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분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시편 118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걷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접할 때 그분은 이것을 활용하십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 당신은 사도행전인 호다(Hoddas)에서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는 사람들이 그분의 지시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신서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이 히브리어 구절을 알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마도 바울은 그곳의 에세네 공동체에 단검을 꽂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빛의 자녀들이요 어둠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너희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 생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 그것을 말한 적이 있으며,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논의했습니다. 내 생각에 교회가 잘못된 것 중 하나는 삶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방식을 배우기보다는 너무 독단적이 되고 신앙 체계에 너무 많은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길을 배울 수 있도록 그분의 길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방법을 배우려 갑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여호와와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느니라. 이제 이 모든 것의 끝, 절정은 영속적이고 영원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의 언어가 분명히 우리를 교회 시대의 끝, 메시아 시대의 끝, 재림의 때,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점에 있는 때로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국제적인 분쟁 없이 이 땅에 그분의 의로운 통치를 시행하실 것이며, 모든 나라가 평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Micah가 던진 약간의 추가 정보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살 것이며 그를 두려워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밖에서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며, 보안은 누가 최고의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성경 시대의 요새 도시에 살 수 있고 그들이 생존할 것이라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왕국은 심지어 전쟁 기술마저도 상실되는 전쟁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무력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평화입니다. 전쟁도구 자체가 농기구로 전환되면 나라는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이야기했던 제유를 봅시다. 부분을 전체로 사용하거나 전체를 부분으로 사용하는 비유화법. 그러므로 칼과 창이라는 두 무기를 버린다는 것은 완전한 무장해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대체하는 것은 땅을 갈는 데 사용되는 작은 금속 끝 부분인 보습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림처럼 완전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다른 종류의 삶을 가리킨다. 요약하자면, 여기에 외적 평화가 있습니다. 완전한 무장해제와 두려움 없는 영구적인 평화가 있는 평화입니다.

인간이 만든 평화는 깨지기 쉽고 항상 어느 시점에서 깨집니다. 이곳에는 평강의 왕께서 세우신 영원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의 왕국은 온 세상을 포함할 것이며, 그 왕국은 의와 참된 영성에 기초하여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그 평화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다스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 유지는 추구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5.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것은 좋은 직업입니다.

적어도 당신은 그것이 꾸준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입장에 서서 궁극적인 평화는 순전히 벼랑 끝 전술이 아닌 신성하게 중개되는 것임을 깨닫고 협상 기술을 배울 때까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면 실업 수당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의하시는 궁극적인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 정치학 강좌도 오게 해주세요.

화평케 하는 자들아, 그들이 굳게 서게 하라. 그러나 그들은 궁극적으로 이것의 영적 또는 종교적 측면이 방정식에 포함될 때까지 우리를 한 지점으로만 데려갑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Marv Wilson입니다. 이것은 세션 28, 이사야가 선정한 구절, 3부입니다.